

“00택배, 인터넷 주소 접속하세요”... ‘스미싱’ 기승

택배회사들 고객 정보 등 요구 안해 운송장번호·주소 조회 요구땀 의심 업체 자체 차단 불가... 소비자 주의를

A택배회사를 이용하는 B씨 최근 횡당한 경험을 했다. 택배주소가 잘못됐다고 주소를 변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A회사명과 접속 가능한 인터넷주소가 써 있었다. 지시대로 인터넷에 접속했지만 내 정보가 누출됐거나 소액결제에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택배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으면서 택배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택배업체 자체적으로는 피해를 방지하기 쉽지 않아 소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Sms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문자 상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금융사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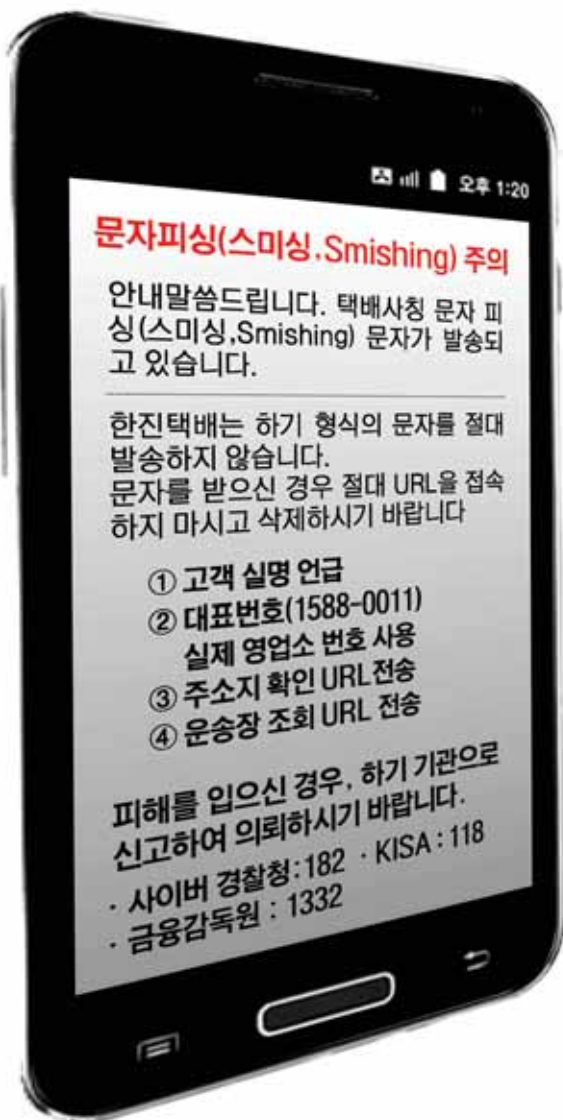
1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택배회사는 고객들로부터 택배회사 이름이 담긴 문자의 사실 여부를 묻는 상담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콜센터로 스미싱 관련 문의가 증가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홈페이지에 스미싱 피해 안내팝업을 게시하고 안내전화 ‘1번’을 스미싱 주의안내로 바꿨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문의한 문자 내용을 보면 고객이 택배회사에서 보낸 문자라고 여길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고객 실명, 대표 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소 번호도 써 있다.

주소지와 운송장을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발송된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이들 문자는 택배를 이용하다가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택배가 도착했다’ ‘고객 부재로 택배가 반송된다’는 내용들이다. 이 문자를 받은 고객이라면 무심코 문자 요구에 응하기 십상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인터넷주소가 써 있거나 운송장 번호, 주소 조회 등을 요구하는 문자는 스미싱이라고 지적하며 무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회사들은 이 같은 방식의 문자를 고객에게 보내지 않는다. CJ대한통운은 전용 택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한진택배도 인터넷 주소가 써 있는 문자를 고객에게 발송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택배 스미싱을 택배회사 자체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점이다. 택배의 속성은 스미싱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A택배회사 관계자는 “택배 스미싱은 ‘타인이 택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는 고객 심리를 이용한다”며 “한 번이라도 택배를 이용한 고객은 ‘내가 전에 보낸 택배 문자인가’라고 생각을 갖고 스미싱에 속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객 정보가 택배 스미싱으로 활용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유통업체, 통신회사, 금융회사 등이 대량으로 고객정보를 유통한다는 사실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객이 받은 택배물품에 붙은 운송장을 모아 스미싱에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업계에서 정설처럼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택배 스미싱 고객의 보상 문제가 더 골치거리다. 원칙적으로 스미싱 보상 책임은 제3자인 택배회사가 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스미싱 문자에 택배회사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항의하는 고객이 있다는 것. 스미싱이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우려다.

현재 택배회사는 택배물품의 도착 예정시간, 도착 여부 등을 문자를 고객에게 보낸다. 만일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택배회사 고유형식으로 문자를 보낸 후 통화번호로 정보를 빼가는 스미싱이 개발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전화 통화번호로 스미싱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알려졌지만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도 “스미싱 자체를 없애기 어렵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차단업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미·중 대외적 악재 여전

변동성 장세 지속 전망

환율시장 모니터링 필요

지난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의 이슈는 단연 중국정부의 통화정책변경이었다. 주요 골자는 위안화의 시장화를 위해 통화시장에 해외적격 투자자제도 도입, 거래시간 연장, 전일시장의 환율충격을 다음날 고시환율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이번 정책이 발표된 화요일 위안화의 시장환율은 전일보다 1.8% 상승 마감했고 수요일과 목요일엔 각각 1.62%, 1.11% 추가로 상승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로 인해 위안화 고시환율은 201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증시도 위안화 산 회피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내시장 또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와 겹치며 지난주 장중 한때 1950선을 하회하는 등 급락세의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난 금요일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KOSPI가 기관매수세를 바탕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와 중국 위안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 등 대외적 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또한 장기추세선인 200일선을 이탈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세 복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주 주시장은 반전의 기미가 보인다. 주말 증가기준 KOSPI의 12개월 Forward PBR은 0.877배 수준으로 2006년 이후 평균의 -1 표준편차(0.922배)를 하회하고 있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상 추가적인 하락리스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부담인데, 2010년 이후 KOSPI와 원·달러 환율간의 상관관계는 -0.62로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훼손과 달러화 강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회피 및 안전 자산 선호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간의 상관관계 수 또한 KOSPI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시장은 환율이라는 변수에 따라 움직임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환율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자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부실정보 제공 부동산중개업자 30% 책임 판결

법원 “임차인도 시세 등 확인해야”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임차인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책임이 30%로 제한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도 중개인과는 별도로 시세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부동산 중개업자 B씨의 소개로 경기도 남양주시내 아파트 주인 C씨와 보증금 1억2000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중개수수료 36만원을 줬고 전세금 설정까지 마쳤다. 앞서 C씨는 두 달 전인 6월 미분양분이 이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 6억9000여만원에서 29% 할인된 4억9000여만원에 사들였다.

더욱이 C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실제 구매가의 95%에 이르는 4억6천여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B씨는 C씨가 애초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 등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문제는 C씨가 은행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이 아파트는 같은해 11월 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겨져 3억8천여만원

에 낙찰됐다. 매각 대금은 은행에 대부분 배당됐고 A씨는 한 톨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실제 분양가를 미리 알려줬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전세금 설정비용 등 1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병용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시세 등을 설명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실제 분양가의 93.6%에 달한 것을 알았다면 A씨가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할인 분양 여부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 계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A씨 역시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직접 문의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B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협뉴스

증권사 상반기 장사 잘했다

KDB대우증권·삼성증권 등 순익 대폭 증가

올해 상반기 주시 거래가 활성화 한 덕에 국내 증권사들이 대규 모 이익을 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지난 13일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1~6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229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980억원보다 134.0%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익 증가는 채권투자 부진에도 주식 위탁매매 수익 증가와 비상장사 투자 자금 회수 등에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도 연결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20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469억원의 4.4배에 이른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천74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작년 말 합병한 NH투자증권도 올해 상반기 16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흑자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 20292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으며 합병관련 비용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축소됐다.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125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09억원의 27.7% 늘어났다. 키움증권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257억원으로 346.40% 증가했다.

대신증권은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올해 상반기에 75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연협뉴스

투데이 옥션

부동산판매 추천물건

광주 동구 학동 근린건물
전대병원 맞은편 위치
병원,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추천
지하 2층 ~ 지상 5층
대지 456㎡ 건물 1779㎡
감정가 23억2천 최저가 16억2천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동부서 인근 투자가치최고 상가건물
사옥 학원 커피숍 편의점 추천
지하1층 ~ 지상 3층
대지 306㎡ 건물 400㎡
감정가 7억 3천 최저가 7억 3천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사거리 코너 위치
지하1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광주 서구 농성동 상가주택
KT 서광주 지사역 코너번
지하1층 ~ 지상 4층
대지 285㎡ 건물 871㎡
감정가 5억7천 최저가 3억9천

광주 서구 금호동 상가주택
삼거리 코너 위치
지상1층 ~ 3층
대지 210㎡ 건물 369㎡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3억3천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기)	광주교육대학교(12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 (특급반) · 목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 (초급반)	·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일) 14:10 (중급반) · 월·목·토 오전반 2015. 9. 7(일) 19:00 (특급반) ·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일)~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초·중·고)교과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취득) 기회 부여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초·중·고)교과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Kwangju Women's University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620-4243 ·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Gwangju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평생교육원 http://www.gne.ac.kr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